



“제발, 살아서 돌아오라” 차가운 바다 에타는 가족

5일 오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의 실종자 9명을 구조하기 위해 목포해경과 해군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신안=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안 해상서 어선 '청보호' 전복...3명 구조·9명 실종

꽃게·소라 잡이 24 t 급 어선

실종자 내국인 7명·베트남인 2명

해경, 크레인 동원 인양 추진

사고 선박 평소에 침수 반복

출항 당시 배 기우는 이상현상

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 20분께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12명이 탄 인선전적 청보호(24t급)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헬기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사고 당시 청보호에는 꽃게·소라 통발 작업을 위해 12명의 선원이 탑승했던 상태로, 바다에 떨어진 3명은 목포 광역 해상관제센터(VTS)의 구조 요청으로 인근에서 항해 중인 상선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은 내국인 2명,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1명으로, 당시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실종자 9명 중 베트남(2명) 출신 노동자를 제외한 7명은 내국인으로 진도·순천 지역민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광·함평서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 연다 ▶2면

핸드볼 광주도시공사 여자부 단독 1위 질주 ▶18면

세계의 문화도시를 가다 - 스텝클름 ▶22면

해경은 신고 접수 후 인근에서 항해중이거나 조업중인 선박에 구조요청을 보내고 경비함정·헬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는 한편, 생존자 진술을 토대로 실종자 9명 중 6명은 바다에 빠졌고 3명은 전복된 배 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선체 외부에서 반응을 확인하며 수색 중이다.

해경은 청보호가 지난 1일 오후 2시께 진도 서방향에서 출항해 통발과 어망을 이용해 소라와 꽃게 등을 잡았고 통발과 어망을 회수 후 추라도 방향으로 이동중 기관실에서 침수가 발생했다는 생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또 기관실에 중중 물이 썼고 출항 당일에도 물이 샐는데 양이 많지 않아 그냥 운항했다는 생존자 진술도 확보,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다. 선원들 사이에서는 사고 선박이 평소에도 침수가 반복됐고 출항 당시에도 배에 기우는 이상 현상이 있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해경은 현재 수색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선내 수색의 경우 개황이 많이 보이지 않고 3000여개에 달하는 통발어구와 어망 등으로 얽혀 있어 선실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또 수면 위로 드러난 선체 바닥에 구멍을

신안 해상서 어선전복



뚫고 배 안으로 진입하려는 계획도 추진했으나 이중 격벽과 기관실 장비들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다. 해경은 이에 따라 크레인을 동원해 가능한 빨리 청보호를 인양, 선내 수색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철 목포해경서장은 "안타까운 사고를 접한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구조 작업을 총 동원해 빠른 구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신안=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尹 “어선 전복, 충분한 지원”

신안군수와 통화...“수색에 최선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안 해상의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 박우량 신안군수와 통화하고 "중앙에서 충분한 지원을 쏟겠으니 신안군도 모든 힘을 쏟아달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군과 해경이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민간 어선도 적극 동참하도록 해달라"며 "인명 수색에 총력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조속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관계 당국에 거듭 지시한 상태다.

조속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현지 급파도 지시했다. 또 해상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군 헬기 3대와 초계기 투입을 지시했고, 해군특수부대의 추가투입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신안 해상 어선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이날 함정과 항공기, 구조대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군에 따르면 신안군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통발어선 전복사고 이틀째인 이날 오전 사고 해역 일대에 전복함, 김장학함, 전병익함 등 함정 3척, P-3 해상초계기 1대, 해군 해난구조대(SSU) 5명이 투입됐다. 공군 헬기(HH-60, HH-47) 2대와 공군 항공구조사(SART) 4명도 투입해 해양경찰과 함께 실종자 수색작전을 벌였다.

김포함과 통영함, 해군 링스헬기, SSU 구조대원 21명이 작전 현장에 추가 합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군의 수색작전 전력은 해군과 공군을 합쳐 함정 5척, 항공기 4대(P-3 오전·오후 각 1대, 헬기 3대), SSU 해난구조대 30명에 달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실내 마스크 해제 1주일

코로나19 감소세 지속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1주일째에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1만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4018명 늘어 3025만 7411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4624명)보다 606명 감소한 것이다. 1주일 전인 지난 29일(1만 8864명)보다 4240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2일(1만 6615명)보다는 1991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6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작년 7월3일(1만36명) 이후 31주 사이 가장 적다.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412명→1만9617명→2만414명→1만 6856명→1만 4961명→1만 4624명→1만 4018명으로, 하루평균 1만 5414명이다.

광주·전남도 지난 4일 971명에 이어 이날 1066명을 기록했다. 이날 0시 기준 광주에선 468명, 전남에선 598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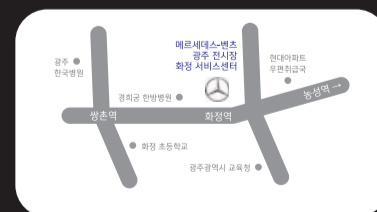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EQ

신성자동차 |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원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성서대로 1041 (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민중중과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S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4회 도상 4.2, 고속도로: 3.9 | 1회 충전거리(km) : 440, 공차중량(kg) : 2405,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S 4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회 도상 3.8, 고속도로: 3.7 |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회 도상 3.8, 고속도로: 3.7 |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차량의 표준모드에 의해 일부 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성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차량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